

동맹국 걸프 전비 부담 힘입어 미, 적자 대폭 축소 전망

IMF분석 1/4분기 1백2억달러 흑자 기록

해마다 1천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던 미국의 경상수지가 올해는 각국의 걸프전 전비부담에 의한 이전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적자폭이 3백78억달러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선진공업국은 지난해에 비해 적자폭이 줄어들겠으나 개도국은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공업국의 적자폭 축소는 걸프전을 치르면서 중동의 순채권국을 비롯한 각국이 전비를 부담함에 따라 공적 이전거래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은 특히 89년 1천1백억달러, 90년 9백9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미국의 경상수

지 적자폭이 올해는 3백78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2백27억달러에 이르는 동맹국들의 전비 기여금에 힘입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올 1/4분기에 1백2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기금은 미국이 내년에는 다시 적자폭이 확대돼 9백85

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은 올해 선진공업국 전체의 경상수지는 미국의 적자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천1백7억달러 적자에서 6백85억달러 적자로 그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선진공업국을 제외한 개도국들은 89년 1백43억달러, 90년 82억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9백47억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도국들은 내년에도 총 6백95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금은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선진-개도국 분류는 국민총생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업화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선진국은 유럽과 북미·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서방 22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23개국이며, 공산권 국가는 이 분류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다.